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12일 (음력 10월 25일) 화요일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본격 추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6911억원(국비 1635억원·도비 634억원·시군 612억원·민자 4033억원)을 투입해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유적 조사비 2억원이 반영됐고 전남도도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유적 발굴작업 등을 위해 3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내년 대표적 마한 유적 중 하나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남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6911억원 투입

연구·유적지 발굴·테마파크·연구총서 발간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28일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도 추진 사업을 점검, 준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원발의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나주, 화순, 영암, 담양, 함평, 해남, 무안, 장성 등 8개 시·군이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10년간 3단계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반조성기에는 마한 학술연구와 마한문화 특별전 개최 등 10개 과제를 수행하고 마한 역사테마파크와 역사테마길 조성,

연구총서 발간 등도 이뤄진다

세계유산 등재와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마한사' 반영 등도 목표로 잡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에 '가이문화권' 포함으로 국민적 관심은 고조됐지만 정작 우리지역 뿌리의 근간인 '마한'은 상대적 소외돼 우려가 컸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국비 확보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마한역사를 조명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 등은 지난 8월 마한문화권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다른 고대문화권 추진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10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 및 연구 지원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김정현 기자



영암 오리농가 H5N6형 AI로 확인

호남·충남 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영암군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형이 H5N6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5N6형 AI는 올해 겨울 처음으로 사육농장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인 전북 고창 AI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이다. 영암 AI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확인될 예정이다.

이웃 농장은 사육규모 1만2000수로 해당 농장과 방목대 안에 위치한 5개 오리농가

7만6000수 모두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전남, 전북, 충남, 광주, 대전, 세종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차량 및 가족들에 대해 11일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올해 겨울들어 검출된 AI 총 47건 가운데 11일 현재까지 전북 고창 오리농장 1건, 전남 순천·제주 아생초류 3건 등 4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됐고 30건은 저병원성 11건은 음성으로 각각 판명됐다.

영암 오리농가의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올 겨울들어 2번째 농가 발생 AI로 기록될 예정이다.

'탈 금호' 금호타이어

금호그룹 자회사 간 내부거래 속속 중단 계약관계 변경 기존 근무인력 승계 최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결별 후 홀로서기에 나선 금호타이어가 금호그룹 자회사들과 내부 거래를 속속 중단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채권단 방침에 따라 기존 금호타이어와 금호그룹 자회사 간 유지돼 오던 내부거래가 일부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 금호그룹 자회사 간 유지돼 온 내부거래 중 가장 먼저 통근버스 운영사를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임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해온 '케이지'와 계약기간이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업체와 신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전산업무를 담당해 온 '아시아나IT'와도 계약관계 종료에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타이어 물류를 담당해 온 수도권업체 '티엘'과도 계약변경을 앞두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계약관계 변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근무인력들의 고용 승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랑담은 김치" 11일 오전 대구시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사랑나눔 김장행사'에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지역의 독거어르신,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초라한 성적표

전남 장흥군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 위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단체 중 장흥군은 시·군 단위에서 맨 아래 순위에 위치해 공직자들의 비탄된 청렴도 가 지역민 의지감상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5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리우편에서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흥군 6.7점이 5등급으로 꼴지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청렴도 꼴지 리는 오명은 공직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주민들 입장에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성 장흥군수 등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